

# 국제유가의 향방은 어디로

-IMF가 OPEC 접수할 뻔?-



계 덕 남

〈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처장 〉

요즘 국제석유시장은 복잡한 혼미를 거듭하여 예측하기 힘든 갖가지 변수가 돌출하고 있다.

연초만 하더라도 10달러대에 거래되던 중동산 원유(두바이)가 24달러를 돌파하고 있고, 미국 서부텍사스산 WTI는 28달러를 육박하여 어떤 석유전문가는 35달러 시대를 예고하는 등 고유가에 의한 제 3의 석유위기감마저 나돌고 있다.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가장 큰 원인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재등장이라고 하겠다. OPEC는 73년과 80년에 불어닥친 1, 2차 석유파동 이후 근 15년이나 긴 세월을 세계뉴스에 초점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질 뻔한 국제기구이다.

그러나, 이들(OPEC)은 3월 정기총회를 앞두고서 지난 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멕시코 등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국가들이 추가감산을 합의하고 3월 정기총회에서 추진 받음으로써 도합 430만b/d의 석유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 물량은 세계석유시장의 15% 가량으로 오일쇼크에 버금가는 수준임에 틀림없으나, 세계는 놀라지 않았다.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이들의 결의는 항상 협상 테이블에서 종이 위에 멋지게 서명하고 실제로는 항상 생산쿼터를 위반하여 생산하여 왔기 때문이다. 보편적으로 70%의 쿼터준수율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종이호랑이로 여기고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3월 이후 국제유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여 급기야는 91년 걸프전 이래 최고기록을 나타내어 현재 24달러를 돌파하고 있다.

이는 실로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에 와서 상당히 우려됨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우리 나라 경제와

같이 석유의존도가 매우 높고 부존에너지가 빈약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타격이 심히 염려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지난해 유가는 평균 12달러대로 인플레이를 감안한 실질 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 지난 73년 이전보다도 낮은 신기록을 수립하여 OPEC 국가들에 심대한 재정적 타격을 입혔고, 특히 러시아, 에콰도르의 모라토리엄은 유가하락으로 비롯된 외화수입의 감소가 대외지불불능사태를 가져온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계속하여 저유가가 유지되었다면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알제리, 멕시코 등 거의 모든 산유국들이 견뎌내지 못하고 말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줄줄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IMF가 OPEC을 접수하고 세계석유시장은 선진국(IMF)이 적당히 조절(?) 하는 시대가 될 뻔했었다는 점이다.

### 적정유가는 얼마인가?

OPEC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1960년 창설 이래로 2차의 석유위기를 거치는 동안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해 오는 가운데 소위 “메이지”라 불리는 국제석유회사를 몰아내고 석유자원을 국유화하는 등 주권과 권리를 찾는다는 일단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들 OPEC는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자본의 축적과 기술을 향상시켜 실질적이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경영에는 이르지 못했다.

기술과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석유로부터 수입이 보장되어야 함이 선결과제이다. 이들은 항상 합리적인 가격(Reasonable Price)를 주장하고 목표가격을 21달러로 설정하여 왔다. 그리고 지난 3월 정기총회에서 사우디 석유상 나이미가 표방한 유가도 18~20달러 수준이다.

그런데 지금의 유가는 이보다도 무려 6달러 내지 8달러나 높게 형성되어 있고, 급기야는 이라크 수출중단이라는 복병을 만나서 추가적으로 급등할 우려를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격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동의하는 균형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한쪽의 저울이 기울면 부담이 되고 가격은 상승 또는 하락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소 견해가 다를 수 있으나, 석유를 사서 쓰는 우리의 입장에서 급격한 충격과 부담을 주는 가격은 분명히 무리가 따른다. 비록 등락은 있었으나 과거 15년간의 평균유가는 18달러 내외였고, 국제경제질서는 이 선에서 잘 길들여져 왔다. 그러나, 지금의 가격은 과거 15년간의 평균인 18달러의 가격보다 무려 10달러 가까이 높고 더군다나 작년 가격보다는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10월 중순 들어 유가가 20달러 이하로 떨어지자 사우디,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은 현 감산시한을 2000년 3월 이후에도 3~6개월 연장할 계획임을 시사하여 감산이 힘을 잃어 가는 시점에서 다시 강제로 돌아서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다 국제투기자금이 몰려 투기 시장화 되고 Y2K(컴퓨터가 2000년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대비한 가수요까지 겹쳐서 국제석유시장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요인이 다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계절적으로도 겨울철 성수기가 겹쳐있어 수요면에서도 탄탄한 기반 위에 있다.

이렇게 볼 때 지금의 24달러에 달하는 유가는 계절적인 원인과 부합되어 초래된 고유가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봄이 오고 투기자금이 정상화되고 이라크가 수출을 정상수준으로 회복한다면 하강 안정국면을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OPEC는 지난 3월 이후 8개월 동안 고유가의 재미를 만끽하고 이러한 추세를 영원히 지속시켜 석유를 이용한 정치·경제적 이익을 십분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하여 지난 70년대의 OPEC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누리고 싶은 것이 사실일 지 모른다.

시장기능에 알맞고 앞에서 살펴 본 여러 가지 경제외적(인위적 OPEC 생산쿼터제 포함) 요인들을 감안해 볼 때 과연 적절한 가격대는 얼마일까? 어디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적정하게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유가의 수준은 어디일까?

한마디로 향후 유가를 정확히 점치기는 상당히 어렵다.

99년 유가를 12~14달러로 전망했던 세계 석유전문가나 예측기관들도 모두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지금의 시점에서 유가예측이 더욱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 마디로 말해서 논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변수들이 너무 많고 이라크 사태와 같은 돌발변수들이 상존 하고 있는 까닭에 말이다. OPEC가 100%에 가까운 감산쿼터를 지킬지는 그 누구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였기에 지금의 거짓말쟁이가 되 버린게 아닌가?

### 다시 낙타를 탈수는 없다

여기에서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가격과 소비자가 부담하기에 무리하지 않는 가격을 상정하여 보자.

생산자가 원하는 가격은 OPEC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21달러로 볼 수 있다. 물론, 최근의 18~20달러로 볼 수 있으나, 시장장세 여건을 감안하여 높은 쪽인 21달러로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은 과거 15년 평균가인 18달러로 가정한다면 양자의 균형은 19.5달러에서 찾을 수가 있다. 지금의 24달러는 이러한 균형치보다도 4달러 가까이 비싼 게 사실이지만 겨울철 성수기와 이라크 수출중단 등을 감안한다면 그다지 높은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 그런데 실제로는 왜 이렇게 높게 느껴지는 것일까?

이는 분명히 상대적 고가 느낌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난 98년에 너무나 낮은 12달러대의 유가를 지불하는데 익숙해져 있다보니 현재의 24달러의 지출은 부담이 가기 때문일 것이다.

콜짜기가 깊으면 오르는 길은 가파르기 마련인 것이다.

중동을 비롯한 대다수 OPEC 국가들은 석유자원이 많지 않아 고갈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의 기본 석유정책은 석유수입을 극대화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석유의 존형 경제구조를 벗어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급적 석유의 생산수명을 늘리고 가격을 높여서 총 수입을 극

대화하여 석유이후의 시대에 대비하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리비아에서 성행하고 있는 대수로 공사는 석유자원이 고갈된 후에 농업국가로 살아남기 위한 거대한 사업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OPEC는 석유가격을 과연 어디까지 높게 올릴 수 있을까?

사실 석유는 경제학적으로 보아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가격탄력성이 적으면서 공급탄력성도 적어서 OPEC 등 시장독과점일 때에는 가격은 무한정으로 올릴 수도 있다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1, 2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로서 석탄, 가스, 오일셰일과 샌드, 원자력 등이 있다. 그리고 고유가는 한계유전을 더욱 넓혀 비OPEC 지역의 산유량을 더욱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석유생산을 더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석유수입을 극대화하려는 OPEC로서는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대체에너지의 본격적인 출하가격이 25달러가 된다고 볼 때 석유의 공급가격은 25달러 이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OPEC의 생산을 적절히 억제시키는 가격이어야 하기 때문에 25달러보다는 한층 낮아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소비자가 부담이 되지 않는 가격이 18달러이고 생산자가 원하는 가격이 21달러이며 독과점 균형가격을 25달러 이하라고 한다면 적어도 가격은 18달러에서 25달러사이에서 움직인다고 하겠다. 그러나, 18~25달러는 그 범위가 7달러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장거래 가격이 실제로 얼마일까? 이는 시장에서의 OPEC 지배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OPEC 시장지배력이 70~80%를 유지하고 이들의 생산카르텔의 쿼터가 지금과 같이 잘 지켜진다고 가정한다면 - 사실 이 가정은 현실성이 높다. 왜냐하면 쿼터준수로 인하여 그들의 석유판매수입고를 2배 이상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들의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25달러에 가까운 22~23달러선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 2000년 유가는?

OPEC를 중심으로 하여 seller's market으로 바뀐 지금 원유가격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 그리고 얼마까지 계속 될 것인가? 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카르텔은 깨어지기 마련이고 무한히 계속 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다. OPEC내의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 쿠웨이트 등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친미적이고, 베네수엘라나 멕시코는 미국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등에 부담이 되는 석유가격은 통용되기 어렵다.

우리는 여기에서 석유자원이 반드시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서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데올로기가 무너진 지금의 세계정치는 아직 미국을 견제할만한 세력이 형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OPEC는 시간이 갈수록 아니 내년 3월 감산시한이 가까울수록 힘이 약해지고 여기에는 노르웨이,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등 국내사정이 허락하기 힘든 상황도 상존하고 있어 카르텔의 붕괴는 의외로 빨리 올 수도 있다. 감산을 주무기로 하는 OPEC의 카르텔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려면 비OPEC의 생산 증가분만큼 계속하여 감산해야 하고, 아울러 내년 3월 이후 비수기에도 수요 감소분만큼 감산을 유지해야 하는데,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지금과 같은 고유가를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하겠다.

따라서, 2000년 유가는 월동기를 벗어나는 2~3월부터 약제로 돌아서면서 20달러 내외를 유지하다가 성수기에 다소 상승하는 전형적인 가격곡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새 천년에는 올해보다 안정된 석유시장과 요동치지 않는 석유가격을 기대하여 본다. ☯

#### 용어해설

#### 사이버테러리즘

사이버 테러리즘이란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해 가상 공간에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정보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작용 중의 하나로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면서 사이버 테러 행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사이버 테러의 가장 흔한 형태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바이러스 공격이다. 올해초 전세계를 긴장시킨 체르노빌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예다.

국내에서만도 1천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세계에는 4만중에 가까운 각종 악성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모 텔런트의 비디오가 인터넷을 통해 유포돼 말썽이 됐듯 사이버 세계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미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특수부대를 창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해커들에 의해 군사시스템이 공격당할 경우 엄청난 재앙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적절한 대응책을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